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④



선원의 하루 일과(1)-기상과 새벽예불

오경에 대중 올려 새벽을 열다

〈五更〉

천 년 전 당송시대 선원의 하루 일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취침했을까, 하루 좌선 시간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과 없어진 것은 무엇일까?

선원의 일상생활과 규칙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또 각 청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송시대 선원의 하루 일과를 고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당 중기(800년대) 백장회화(百長 회화)를 창설한 이후 당말오대까지 선종사찰에서는 불전을 따로 두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히 불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하루 일과에서 예불이란 있을 수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종사원의 가람 배치'에서 자세히]

좌선도 후대에 와서는 하루 3번 또는 4번 하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백장선사가 총림을 만들던 시대에는 개인의 능력과 신심에 맡겼다. '남악마전의 공안(南嶽磨埵, 매일같이 좌선한다고 하여 부처가 되는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해진 시간에 좌선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또 공양도 아침과 점심 두 끼만 먹었고 '오후불식(午後不食)'이라고 하여 저녁에는 먹지 않았다.

그러나 송대에 와서는 선종사찰에 불전이 들어섬과 동시에 법식을 갖추어 예불을 하게 되었고, 좌선도 하루 3, 4회로 정례화 되었다. 또 저녁 공양도 '약석(藥石)'이라고 하여 상례화 되기에 이르렀다.

선당(선원)의 하루 일과는 기상(起床)·세면(洗面)·새벽 예불(勤行, 朝課)·새벽 좌선(夜夜 좌선)·아침 공양·청소(淸掃)·조참(朝參, 早參)·오전 좌선(早晨좌선)·점심 공양·오후 좌선·저녁 예불(晚

새벽 기상 시간은 4시

오늘날 중국 선원과 사찰도 마찬가지지만, 옛 선원의 새벽 기상 시간은 인시의 정시인 4시였다. 이것은 아마도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제도일 것이다.

얼마 전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김호성 선생의 안내로 간화선의 발상지인 중국의 아록왕사(대혜종교의 주석처)와 목조선의 발상지인 천동사(공자장각의 주석처)를 답사한 적이 있다. 그때 하루 일과 시간표를 보았는데, 새벽 기상 시간은 모두 4시였다. 귀주(貴州)의 대표적인 사찰인 홍복사를 소개한 <문화총림(文化禪林)>(중국 민족출판사, 2005)에는 사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4시에 일어난다고 소개되어 있다. 일본 조동종 영평사의 기상 시간은 여름에는 3시 30분이고 겨울에는 4시 30분이다. 임제종 선원도 마찬가지이다. 부타시대의 새벽 기상은 5시 이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시간 앞당겨 3시에 일어나고 있다. 왜 3시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부터였을까?

조선시대에는 밤 10시-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새벽4시(인시, 오경)에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종을 '오경종(五更鐘)'이라고 불렀다. 서울에서는 보신각종을 33번 치고 4대문을 열었다. 사찰에서도 새벽 기상을 알리는 종을 '오경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선시대 말까지 우리나라 사찰의 기상 시간은 4시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새벽 기상 시간을 '인시(寅時, 3시-5시)'라고 했으므로 1시간 앞 당겨 3시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문선사의 <자경문>에는 '삼경(6시간, 9시 취침-3시 기상) 외에는 잠을 자지 말라(除三更外 不許



우리나라 선원의 기상 시간은 새벽 3시다. 왜 이때 일어났을까?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부터였을까? 사진은 새벽 도량석 모습.

한국선원은 1시간 앞당긴 3시가 기상 시간

예불 모습은 송대 이전 백장 때와 같다

課)·약석(藥石, 저녁 공양)·저녁 좌선(황혼 좌선)·취침(閉闔)이다. 이것이 대략 송대에 정해진 선당의 하루 일과이다.

선종사원의 새벽 기상은 인시(寅時) 즉 오경(五更, 3시-5시)이다. <선원청규> 10권 '백장규승송(規繩頌)'의 '수좌송(首座頌)'에 "인시에 대중이 집합할 때(寅時衆集時)"라는 말이 나오고, 또 6권 '경중(警衆)'에는 "오경(五更, 인시)에 대중을 치는 것은 잠을 깨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무량중수 선사가 지은 <일용계법> '일종법(久乘法)'에는 "일어날 때는 남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오경의 종이 울리기 전에 몸을 가버히 듣고 미리 일어나라" "오경에 세면(洗面, 세수)하는 것은 본래 수행을 위해서이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선원에서 새벽 기상은 인시였다.

우리나라 사찰은 모두 새벽 3시에 일어나므로 당연히 옛 중국 선원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시계가 만들어지기 이전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도 하루 24시간을 12시간으로 구분하여 12간지(干支)로 표기했다. 자시(子時)는 밤11시-새벽 1시까지이고, 축시(丑時)는 새벽1시-3시, 인시(寅時)는 3시-5시까지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준 시간 즉 시점(時點)이 있었다. 시점을 '정시(正時)'라고 하는데, 중간이 정시였다. 예컨대 낮 12시를 '정오(正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12시가 오시(午時, 11시-오후1시)의 정시이기 때문이다. 밤 12시를 자정(子正)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睡醒)"는 말이 있는데(삼경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음), 혹시 이런 것이 어울려서 3시에 일어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예불(근행, 조과)은 4시 30분

예불(근행, 조과)은 4시 30분경에 시작된다. 30분간 세수 양치 등을 하면 4시 30분경이 된다. 새벽 예불을 '근행(勤行)' '조과(早課, 朝課)'라고 하는데, 오늘날 중국이나 일본은 그대로 쓰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는 '근행(勤行)'이라고 했다.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지은 <계초심학인문>에는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근행하라(須朝暮勤行)"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아록왕사는 새벽예불을 '상조전(上早殿)'이라고 한다. 아침(早)에 불전(殿)에 올라간다(上)는 뜻인데, 조전(早殿) 자체가 예불을 뜻한다. 저녁 예불은 상만전(上晚殿)이다.

중국 선원에서 새벽 예불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같지만 '능엄주' '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십소주(十小呪, 열 개의 작은 진언)' '반아심경'을 각각 한 번씩 외었다. 이것을 '봉송(誦講)'이라고 하는데, 소리 내어 읽는다는 뜻으로 독송과 같다.

예불을 마치면 약 5시-5시 10분쯤 된다. 이때부터 새벽 좌선을 시작하여 5시 50분쯤 마치고 6시에 아침 공양을 한다. 아침 공양은 죽(粥)이다. 그래서 아침 공양을 '조죽(朝粥=早粥)'이라고 한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당말오대(959

능엄주 외우면서부터 선정신 퇴색

년경)까지만 해도 선종총림에는 불전(대웅전)이 존재하지 않았다. 송대에 와서 비로소 불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으므로 그 이전에는 법식을 갖춘 예불은 따로 없었던 것이다. 굳이 '예불'이라고 한다면 4시에 일어나서 세수와 양치를 한 다음 선당 안에 모셔져 있는 승형(僧形) 문수보살상에 3배를 하는 것으로 끝냈다. 3배를 하는 시간은 1-2분 정도이다. 이어 늦어도 4시 40분경부터 좌선을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선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선원은 선당 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 또는 문수보살상을 향하여 입승님의 죽비 소리에 맞춰 3배를 한다. 능엄주·대비주·십소주 등 예불은 일정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선원의 예불 모습은 송대 이전 즉 백장 때와 같고, 중국이나 일본 영평사 등은 송대, 원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은 특히 '능엄주' '대비주' '십소주' 등 진언, 다라니가 많이 들어가 있다.

송나라 때 장로종색 선사가 1103년에 편찬한 <선원청규>에는 불전에 대한 언급이 겨우 한군데 나온다. 불상이 되고자 갖 입문한 행자들을 훈계하는 '훈동행(訓童行, 9권)' 장에 "매일 만참(晚參, 저녁 법문)에는 불전 앞에서 부처님께 예배하라"는 한마디가 있을 뿐인데, 그것도 행자들을 가르치는 '훈동행'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불전 앞에서 부처님께 예배하라"는 것은 행자들에게 한정된 것 같다. 하여튼 이때쯤 비로소 선종총림에 불전이 들어서고 있었지만 그 규모가 작았고, 역할이나 기능도 크지 않았다. 그저 신자들을 위하여 전각의 하나로 두었을까 뿐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능엄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또 '능엄경'에 대한 언급도 없다. 말하자면 이때까지만 해도 선불교에서 '능엄경'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35년 뒤인 1338년 즉 원나라 순제 지원 4년(고려 충숙왕 7년)에 동양덕회가 직명에 의해 편찬한 <취수백장청규>에는 '능엄주'에 대한 언급이 많고 <능엄경>을 독송하는 능엄회까지 만들어진다. 또 왕의 축성을 비는 축리장과 보은장이 등장한다. 이것은 취수이므로 당연히 원나라 즉 몽고와 티베트불교의 영향일 것이다. 이 시기 원(元)의 지배하의 고려도 만다라 성격의 후불탱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또 원나라 고승들의 내용이 빈번했는데 부인을 대동하고 주육(酒肉)을 하는 이들도 꽤 있었다. 어찌되었든 피지배국으로서의 척사 대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서 선사상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입만 열었다하면 '돈오경성' '확철대오' '삼불살조'를 주장하는 선불교에서, 그리고 타력(他力, 정토신앙)보다는 자력을 주장하고 있는 선불교에서, 선의 경전인 <유마경>이나 <금강경> 또는 <화엄경>도 아닌 '능엄주' '대비주' '십소주' 등 밀교의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때부터 사실상 선불교는 변질되어 당대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정도 밀교화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십소주(十小呪)의 내용이다. '십소주'란 열 개의 짧은 진언을 한데 묶은 것인데, 그 목록을 보면 소재길상다라니·불모준제신주·약사관정진언·칠불멸죄진언·왕생정토신주(往生淨土神呪)·대길상천녀주(大吉祥天女呪) 등으로, 즉심시불,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표방하는 선종에서 조석으로 진언을 영송한다는 것은 선의 정신이 얼마나 퇴색되었나를 알게 해 준다. 이로부터 선은 풀이 아니라고 해도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당당했던 선불교의 정신은 사실상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옛날 백이숙제는 수양산에 들어가 재미가를 부르면서 굶어 죽었다. 당시 선승들의 금지와 기백, 정신이 백이숙제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다시금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남악회양이나 마조도 일·백장회화·조주·운문·임제·원오극근·대혜종교·천동정각 같은 선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판교로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마디로 불초의 정법안장은 어둠 속에서 깊은 탄식을 하고 있었다.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열들로 나눈 하루

12시(十二時); 자시(子時, 저녁11시-새벽1시)·축시(丑時, 새벽1시-3시)·인시(寅時, 새벽3시-5시)·묘시(卯時, 오전5시-7시)·진시(辰時, 오전7시-9시)·사시(巳時, 오전9시-11시)·오시(午時, 오전11시 오후1시)·미시(未時, 오후1시-3시)·신시(申時, 오후 3시-5시)·유시(酉時, 오후5시-7시)·술시(戌時, 오후7시-9시)·

해시(亥時, 저녁 9시-11시). 이 가운데서도 기준은 정시(正時)로서 가운데 시간이 정시이다. 또 2시간 즉 120분을 다섯으로 나누어(120분 나누기 5=24분) 1점(一點)에서 5점(五點)까지 다섯으로 세분화하였다. 또 1시간을 15분씩 나누어 1각(一刻), 2각, 3각, 4각으로 나누기도 했다. '대화화사전' 1권, 오경(五更) 항목 참조

梵鐘名家 聖鐘社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재(改裝)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재 및 개공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재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둔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www.sungjonga.co.kr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웠어 혼을 담아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관재주 부러면 귀야 어떤!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아름다운 개재 범종 (금박+은박) 범종 (은칠+개공) 해인사종 (금박+은박) 대공: 범산 일광식 (중요무형문화재·대한민국 명장) 전시장: 서울시 중구 경치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사면 함곡리 406-28 Tel:043-536-2581